1. **선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범수 선임 :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도에 신소재 공학과를 졸업한 졸업생 동문이구요. 회사를 같이 지원한것은 아니고 지원하고 보니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후로 신기하게 같은 2차면접조로 선발이 되었고 둘다 합격했었구요

둘다 처음엔 TV 기구설계라는 직무를 맡았었고 이후 연차가 지나면서 여기 원종권 연구원은 계속 같은 업무 커리어를 쌓아왔구요. 저의 경우 최근에 SW 데이터 엔지니어로 직군변경을 하였습니다. 회사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진로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 분야 재미있겠구나" 하신건지 아님 다른 대외 활동이나 경험으로 선택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원종권 선임 : 사실 처음부터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막연하게 남들따라서 적당한데 취업해야지 하고 생각했었고, 솔직히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게 재밌겠다 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없는 대외활동도 해봤고, 다른과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게 좋을지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것은 삼성디스플레이 인턴을 하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인턴십을 할때는 흔히들 F직군이라고 하는, 설비관리 직군에서 일하면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현업에서는 설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인턴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수 있을 까 고민도 해보았어요.

물론 한달반 정도의 짧은 인턴십이었기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제대로 해봤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업의 분위기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턴십 종료 이후에는 설비관리 직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이 가장 잘 맞을지 고민도 하면서 지금 있는 분야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전공이 선배님의 직업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전공하시면서 나랑 안 맞는다 생각 하신적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 김범수 선임 :

저랑 너무 안맞는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는것 같고, 보통 내 전공과 미래에 대해 연결을 해보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제가 전공한 신소재공학의 사실 학부때 교수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석사 이상을 밟지 않는 이상 전공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학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미은 많았던것 같아요

흔히 전화기, 요즘은 컴공까지는 충분히 전공을 살릴 수 있지만 저희 학과는 그러기엔 학부수준으론 너무 포괄적인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있는 원종권 연구원도 재료과를 나왔지만 기계공학이 메인인 기구설계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기구설계에서 컴공이나 산업공학이 메인인 데이터 SW 직무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7년정도 다녀본 지금 이런 경험을 몇번 해보면서 역설적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면 할수 있는 직무가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 곳인데 오히려 전공을 살린다는 생각에 얶매여 있지 않으니 자신감 있게 직무변환의 기회가 생길때마다 잡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더 문화도 이전보다 좋은 부서에 오게 되었고 앞으로 또 새로운 직무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직무에 적을 할 수 있는 생존력도 얻게 된것 같구요

**선배님의 취업 과정이 궁금합니다.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는지 ,어떤 활동으로 스펙을 채워가셨는지 궁금해요!**

- 원종권 선임 :

스펙이라 하기는 애매한데 2학년때 전공과 관련 없는 대외활동을 한적이 있어요. 스펙으로 쌓으려고 했던 대외활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좋아하는걸 해보고 싶어서 했던 대외활동인데

의외로 나중에 면접을 볼때 이런거에 대한 스토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단순히 전공관련 준비만 한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이 사람이 사회성도 있다는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가 돼요.

그리고 3학년때는 필수 요건인 영어 스펙을 쌓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넘길 수 있을 수준으로 영어점수를 만들었어요. 또 전공과 관련없는 내용인데

3학년 여름방학때 반짝 해서 한국사 1급도 땄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이 없지만, 내가 전공 이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거를 어필하기 좋을거 같아요.

그러고 4학년때는 인턴을 하면서 스펙을 쌓았고요. 음 학점은 스펙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 김범수 선임 : (시간없으면 제것은 빼주세요)

3학년은 방학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스펙을 쌓고 학점을 덜듣는 4학년때부터 학교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취업했을때도 과거의 고학점 위주보단 실무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실행 해봤던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도메인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와 베터리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또는 자동차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작은 기업이더라도 해당 도메인의 기업에서 인턴을 해보던지 학교에서 홍보하는 외부 교육이나 실습등을 많이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마음도 편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까 원종권 연구원이 말했던 한국사도 그렇고 저의 경우도 3학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컴활1급이나 토익 같은것은 기본적으로 준비는 했었어요

자소서에 뭔가를 기입하는 칸이 존재하면 그것은 기본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2. 지금의 직장에 취직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 원종권 선임 :

4학년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준을 시작했고 서류는 일부러 중견기업까지 접수해서 상반기 10개, 하반기 20개정도 썼어요.

그중에 일부는 갈생각이 없는 회사였지만, 자소서 쓰는 연습 차원에서 한번 써봤었어요. 어차피 자소서의 양식은 다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2~3군데 서류를 써보면 그다음은 쉬워요.

그러고 인적성의 경우 책 1~2권 정도 틈틈이 문제풀이 하면서 준비했고

면접은 스터디 통해서 준비했었어요. 회사별로 면접 준비하는 오픈카톡방이 많은데 비슷한 지역, 전공 사람들 3~4명 정도로 해서 매주 1~2회 씩 예상질문 뽑고 모의면접도 하면서 준비했었어요.

같은학교보다는 다른학교 사람들과 스터디 하면서 면접 준비하는게 좀 더 다방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3. R&D 직무를 선택하기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직무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 김범수 선임 :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의 R&D직무와 학석사의 R&D직무는 확실히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확률도 다릅니다. 아마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무래도

학석사의 R&D는 R보단 D죠. 그럼에도 이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R&D가 인문계나 여타 직무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생산 공정쪽 직무에 비해 교대근무를 할 확률도 낮고 항상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어요 두번째는 문과 직무에 비해 정성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압박, 심리적 압박등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도메인만 잘 정한다면 이직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회사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겠네요

R&D에 대한 배경지식이 적은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와 학석사의 직무가 왜 달라지는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4. 학년별로 취업을 위해 미리미리 쌓아나가면 좋을 것들을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종권 선임 :

1학년때는 말그대로 경험을 쌓는 시기라 뭐가 되었건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하고싶어요.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요.

2학년때는 전공과 상관없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고싶었던 거를 한번쯤 해보면 좋을거 같고

3학년때는 토스, 오픽 등 영어점수 쌓고, 제2외국어도 하면 더 좋고, 그 외 자격증따보고 싶은게 있으면 도전하면 좋고요.

4학년때는 본격적인 취준인데, 먼저 취준한 선배, 같이 취준하는 동기들에게 다양한 팁들어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5.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 김범수 선임 :**

물론 저희때도 그랬지만 공채가 많이 폐지되고 경력같은 신입을 원하는 기조가 최근에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엔 정량적인 스펙만 쌓으면 되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니 또 그 경험부터 쌓기 위해 경쟁해야하고

공부도 하랴 직무 경험도 쌓으랴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을 보면 취업을 한번에 성공 못하더라도 계속 두드리다보니 대부분 일년 안으로 본인의 기준에 매칭이 되는 회사를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충분히 취업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은 꼭 주도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받으세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취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종권 선임 :

예전보다 취업하기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취준할때와 지금과 많은것이 달라졌을거라서 이렇다 저렇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회사만 해도 채용인원이 줄었다는게 느껴져요.

하지만 취업시장에서 동문님들이 남들에 비해 밀릴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가지로 고민해보고, 나중에 무엇을 할지 계속 찾아가보다 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기 보다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것, 지금 하고싶은 것을 먼저 하면서 내가 20대에 해온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고 생각하면 보다 재밌게 나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지금 무언가 하고싶은 직무를 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있는 일은 언제던 달라질 수 있는거고, 좁은 스펙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힘든 시기겠지만 그동안 졸업한 선배들 대부분이 잘 졸업해서 사회생활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 조금만 더 버텨내면 분명 좋은날이 올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할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던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3장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파트는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특별히 강조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으니 여유롭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주제에 대해 강연처럼 해주셔도 좋고, 여러 이야기를 차례차례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분께서 나오시니 서로 질문을 하시거나 공통의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